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부모를 위해 수고로움을 다하고, 부모에게 음식을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해서 효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늘 밝은 안색으로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섬길 때는 조심스럽게 간언[諫]해야 합니다. 설령 부모가 듣지 않아도 더욱 공경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를 행하면서 뒷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며, 뒷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보 기 >

- ㄱ. 효는 부자(父子) 간을 넘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 ㄴ. 자식은 자기 자신의 이해(利害)에 따라 효를 실천해야 한다.
- ㄷ. 간언을 할 때는 친애(親愛)의 마음을 신중하게 표현해야 한다.
- ㄹ. 부모에 대한 물질적 봉양과 함께 공대(恭待)를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함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하였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하였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이 정해 주신 초소로 여겨야 한다.
(나)	“사람들이 각자 잘하는 일을 얻는다면 천하의 일은 합당하게 되고, 그 직분이 고르게 나누어지면 천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어느 고대 중국 사상가의 말처럼, ㉠은/는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활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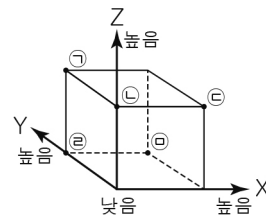
< 보 기 >

- ㄱ.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다.
- ㄴ.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 ㄷ. 부의 획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다.
- ㄹ. 절제와 금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해야 할 직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정보 창작자가 산출한 정보는 독창성과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산물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새로운 정보 창출의 터전이 되는 지식의 샘플이 고갈되지 않도록 창작자의 의욕을 북돋아야 한다.
- (나) 정보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할 지적 창작물을 배타적 영역에 머물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 창출의 터전이 되는 지식의 샘플을 사유화하여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 X: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중시하는 정도
- Y: 정보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 Z: 정보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와 같은 입장을 지닌 어떤 서양 사상가는 개인 생활에서 집단 생활로 진행할 경우, 충동을 제어할 이성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집단 간 공동의 지성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그것을 맹목적이게 하는 공동의 충동에 의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므로 인간이 지닌 이성만으로 모든 이기적 충동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한다고 본다.

- ① 이성의 발휘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③ 사회 정의를 위해 집단은 기꺼이 자기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④ 집단 간 권력 투쟁을 통해서만 집단의 이기심은 억제될 수 있다.
- ⑤ 이성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집단 간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5.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애하는 OO에게
오늘날과 같은 다종교 시대에는 자신의 종교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 종교 간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네.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종교들이 내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믿는 프톨레마이오스적 시각을 버리고, 내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보는 코페르니쿠스적 시각을 채택해야 한다.’는 어느 종교학자의 말에 주목해야 하네. 코페르니쿠스적 시각은 각 종교가 아집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네. ... (후략)...

- ① 과학이 종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② 종교 간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여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 ③ 스스로가 믿는 종교적 진리가 절대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종교 교리의 단일화를 통해 종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⑤ 초월적 존재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9.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가)</p>	<p>유전자를 조작해 종(種)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인간 현존재의 ‘무지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모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기 고유의 길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놀라워할 수 있는 인간적 삶의 권리를 갖게 된다.</p>
<p>(나)</p>	<p>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전 형질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자를 키우고 부적합한 자를 줄여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필요에 맞게 맞춤 제작되어야 하며, 체격, 성격과 같은 자연적 운명만이 아니라 직업, 취미와 같은 사회적 운명까지 인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p>

- ① 사회 발전을 위해 인간 삶에서의 우연성을 통제해야 한다.
- ② 인간의 유전적 완벽함을 위해 인간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 ③ 인간은 자율적이며 자기 목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인간 생명의 도구적 사용이 가치 있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⑤ 인간의 유전자를 획일화시키는 데 생명 공학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7.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불의한 정부에 복종하는 것보다 불복종의 처벌을 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잃는 것이 적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거의 정의로운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게서만 시민 불복종은 생겨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법적 행위인가?
- ②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행위로 폭력적 수단을 배제해야 하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동체의 정의감이 아닌 개인의 양심인가?
- ④ 시민 불복종은 그로 인한 법적 결과까지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가?
- ⑤ 시민 불복종은 모든 합법적 행위가 실패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8.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칼럼	○○○○년 ○월 ○일
<p>요즘에도 일부 국가에는 여전히 경제적 이득을 위한 강제적 조혼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성인식과 같은 비인간적 문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 간 공존을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까지 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관용하면 안 된다. 관용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무제한적 관용은 오히려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 margin-top: 5px;"></div>		

- ① 주관적 선호에 따라 관용의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 ②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 ③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관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④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도 인정해야 한다.
- ⑤ 모든 문화에 대해 무제한적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① A는 경험적 사실 기술보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중시한다.
- ② B는 도덕적 관습이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임을 강조한다.
- ③ C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 ④ A는 B에 비해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 ⑤ B는 C와 달리 도덕 명제에 대한 논리적 명료화를 강조한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대지에 기율인 정성, 믿음 등에 의해 인간과 대지의 관계가 좌우된다. 이 관계에서는 대지에 대한 경제적 타산과 함께 윤리적·심미적 측면까지 고려된다.

을: 꽤 고 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병: 믿음과 욕구, 지각과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이 있고,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나)

```

graph TD
    Start[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A_Pos[갑의 입장]
    A -- 아니오 --> B{B}
    B -- 예 --> C{C}
    B -- 아니오 --> D{D}
    C -- 예 --> B_Pos[을의 입장]
    D -- 예 --> C_Pos[병의 입장]
    
```

<범례>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 - -

사상가의 입장: ~~~~~

—〈보기〉—

- ㄱ. A: 전체론적 관점에서 생명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가?
 ㄴ. B: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관심에 따른 의무인가?
 ㄷ. C: 고통을 느끼는 모든 종(種)은 도덕적 지위에 있어 동등한가?
 ㄹ. D: 도덕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 필요한가?

- ① \neg , \vdash ② \neg , \exists ③ \perp , \exists
④ \neg , \perp , \vdash ⑤ \perp , \vdash , \exists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대의 예술 작품은 문화 산업으로 포장되어 싼값에 제공됨으로써 대중의 의식을 포섭해 대중과 예술 모두를 소외시킨다. 그래서 문화 산업에서는 비평이 사라진 것처럼 존경도 사라진다.
을: 현대의 예술 작품은 기술적 복제가 가능하게 되어 그 ‘아우라’가 위축된다. 복제 기술은 대중이 예술 작품을 보다 쉽게 접하게 하여 개별화된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 ① 갑: 문화 산업은 개성의 표현을 장려해 대중의 의식을 다양화한다.
- ② 갑: 대중의 창작 욕구는 예술 작품의 반복적 소비를 통해 강화된다.
- ③ 을: 예술 작품의 복제가 대중에게서 미적 체험의 기회를 박탈한다.
- ④ 을: 복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 예술 작품의 신비감이 감소된다.
- ⑤ 갑, 을: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 대중은 주체적 문화 생산자가 된다.

12.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우리의 음식 소비가 공정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공동의 생산자로서,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참여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되고 세계화된 지금의 식량 생산 시스템은 식량 생산을 독점해, 소규모 생산자가 소외되며 먹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생산자이자 공동체의 참여자로서 음식의 윤리적 소비에 힘써야 한다.

내용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소비가 요구된다.		√			√	√
음식 소비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		√	√
공정한 식량 생산 시스템 구축에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		√	√	
식량 정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 식량 생산 시스템이 요청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지금까지 도덕 교육은 합리적 추론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덕적 삶은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도덕 교육의 목표는 배려의 확산이 되어야 한다. 배려는 타자에 공감하는 것으로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

(나)

올바른 도덕 교육은 어떠한 점을 중시해야 할까요?

A

- ① 배려 받는 사람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중시해야 합니다.
- ② 대화를 통한 상호 교류와 신뢰의 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 ③ 배려의 실천보다 배려에 대한 이론 학습을 중시해야 합니다.
- ④ 배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범의 제시를 중시해야 합니다.
- ⑤ 배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중시해야 합니다.

14. 그림은 형성 평가이다. 학생의 답이 옳게 표시된 것만을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형성평가

3학년 □반 이름 : ○○○

※ 갑, 을 사상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주장으로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에 √ 표를 하시오.

갑: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며,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 형만으로도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

을: 법을 위반함으로써 살인자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는 사회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공공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주장1: 사형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벌이는 전쟁이므로 정당하지 않다.
예 ☒ 아니요 ☐ ㉠

○ 주장2: 사형은 사회 계약에 근거한 구성원들의 생명 보호의 수단이다.
예 ☐ 아니요 ☒ ㉡

○ 주장3: 형벌은 범죄자가 시민에게 입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 ☒ 아니요 ☐ ㉢

○ 주장4: 형벌은 범죄자가 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응보의 실현이다.
예 ☐ 아니요 ☒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5.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분배 정의에서 옳음은 서로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한 사물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차지할 경우에 분쟁과 불평등이 생긴다.
을: 분배 정의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서 합의된다. 과거의 우연적 영향과 이득들이 정의의 원칙에 관한 합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병: 분배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따라서 재분배는 개인들의 소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 ~에게	비판 내용
①	갑 을	공정한 절차를 따를 때 정의로운 분배가 성립됨을 간과한다.
②	을 갑	분배에서 옳음이 기하학적 비례에 의해서 생겨남을 간과한다.
③	을 병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가 허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병 갑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줄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됨을 간과한다.
⑤	병 을	개인들의 소유 권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됨을 간과한다.

35 36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부에 관한 전 지구적 분배 상황은 인류의 공동 자원을 소수가 부당하게 착취한 결과입니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원조함으로써 원조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p>	<p>한 나라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그 나라의 정치 문화이지 자원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원조의 의무를 지닙니다.</p>

- ① 갑: 풍족한 사회에서 원조는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만 행해진다.
- ② 갑: 원조의 대상은 빈곤한 사회의 개인이 아닌 사회 그 자체이다.
- ③ 을: 지구적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빈곤국을 원조해야 한다.
- ④ 을: 국가 간 천연자원 분포의 우연성은 원조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 ⑤ 갑, 을: 원조의 목적은 인류 간 평균적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전쟁에서의 정복욕이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전쟁에서는 선행을 행할 경우 몰락하게 되며 악행을 행할 경우 안전과 안녕에 도달할 수 있다.

을: 전쟁은 정당한 명분만으로 정의로울 수 없다. 전쟁의 정당성과 전쟁에서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쟁은 그 개시가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수행 과정과 전후 처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 < 보 기 > —

- ㄱ. 갑: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침략 전쟁은 가능하다.
- ㄴ. 을: 적국이 침입했을 경우의 방어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
- ㄷ. 을: 전쟁은 국가 이익의 실현이므로 도덕을 배제해야 한다.
- ㄹ. 갑, 을: 국가 간 갈등은 국제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과학 연구는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윤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p>전제1 가치중립적인 것에는 윤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p>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p>전제2 ㉠</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fit-content;"> <p>결론 과학 연구는 윤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p> </div>

- ① 윤리의 개입으로 과학 연구의 객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 ② 과학 연구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기술과 설명이 되어야 한다.
- ③ 과학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관련 연구에는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
- ④ 과학 연구가 윤리적 평가 대상일 때 과학적 진리는 왜곡될 수 있다.
- ⑤ 과학 연구는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그 행위가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더 큰 쾌락을 산출할 때이다.</p> <p>을: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그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보다 사회에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한 규칙에 부합할 때이다.</p> <p>병: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중용의 덕을 가진 유덕한 사람들이 항상 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때이다.</p>
(나)	<div style="margin-top: 10px;"> <p>— < 보 기 > —</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 보 기 > —

- ㄱ. A: 공리의 원리를 규칙이 아닌 개별 행위에 적용해야 한다.
- ㄴ. B: 공익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ㄷ. C: 도덕적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중시해야 한다.
- ㄹ. D: 도덕적 행위는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 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권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갖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세대는 미래 세대가 환경적으로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세대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존재와 함께 시작되므로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습니다.

을: 아닙니다. 권리의 소유는 존재 여부와 무관합니다. 현세대의 행위로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될 미래 세대를 도덕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① 환경권의 귀속을 현존하는 인간으로 한정해야 하는가?
- ②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무는 미래 세대만을 위한 것인가?
- ③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가?
- ④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는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는가?
- 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인가?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